

평화선언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는 한 발의 원폭으로 모두 파괴되어 사람들은 '75년 동안은 초목도 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히로시마는 지금 부흥을 이루고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이 찾아오는 평화를 상징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라는 인류에 대한 새로운 위협에 맞서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이 위협은 비참한 과거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으로써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약 100년 전에 유행한 스페인독감은 제1차 세계 대전의 와중에 적대국 간의 '연대'가 이루어지지 못해 수천만 명의 희생자를 내고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그 후 국가주의가 대두되어 제2차 세계 대전으로 돌입하고 원자폭탄 투하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쓰라린 경험을 결코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민사회는 자국 제일주의가 아닌 '연대'로 위협에 맞서야 합니다.

원폭이 투하된 다음 날 '다리 위에는 부상자와 이미 숨이 끊어진 많은 피재자가 즐비하게 쓰러져 있었다. 대부분이 화상으로 피부가 축 처져 있었다. "물을 줘, 물을 줘"라며 많은 사람이 물을 달라고 울부짖고 있었다.'라는 참상을 13살에 체험한 남성은 "자신만 혹은 자국의 일만 생각하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라고 호소.

작년 11월, 피폭지를 방문하여 "상기하고, 서로 돕고, 지킨다. 이 세 가지는 윤리적 명령입니다."라고 발표한 교황의 강력한 메시지.

그리고 유엔난민기구 고등판무관으로 난민 대책에 정열을 쏟아온 오가타 사다코 씨의 "중요한 것은 고통받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것. 세계는 연결되어 있기에 자국만의 평화는 있을 수 없다."라는 실 체험에서 나온 말.

이러한 말은 인류의 위협 앞에서 우리가 비참한 과거를 반복하지 않도록 '연대'하여 맞서야 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히로시마가 있는 것은 우리 선조가 서로를 배려하고 '연대'하여 고난에 맞서 온 성과입니다. 실제로 평화기념자료관을 방문한 해외 분들로부터 "자신의 문제로 비극에 대해 배웠다.", "인류 미래를 위한 교훈이다."라는 목소리가 제기되는 가운데 앞으로의 히로시마는 전 세계 사람들이 핵병기 철폐와 세계 항구평화의 실현을 위해 '연대'하는 것을 시민사회 전체의 뜻으로 만들어 갈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엔에 눈을 돌리면 50년 전에 제정된 NPT(핵불확산조약)와 3년 전에 성립한 핵병기 금지조약은 모두 핵병기 철폐를 위한 필수적인 조약이며 차세대에 확실하게 '계속'되어야 할 틀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향이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각국의 위정자는 지금이야말로 이 틀을 유효하게 기능시키기 위한 결의를 다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히로시마를 방문하여 피폭의 실상을 깊이 이해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더 나아가 NPT 재검토회의에서 NPT가 규정한 핵 군축에 대한 교섭을 성실하게 추진할 의무에 입각하여 건설적인 대화를 '계속'하고 핵병기에 의존하지 않는 안전보장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전력을 다해주기를 바랍니다.

일본 정부는 핵보유국과 비핵보유국의 다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핵병기금지조약에 서명·비준을 요구하는 피폭자의 염원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이 조약의 체약국이 되어 유일한 전쟁 피폭국으로서 세계 사람들이 피폭지 히로시마의 마음에 공감하고 '연대'하도록 호소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평균 연령이 83세를 넘는 피폭자를 비롯하여 심신에 악영향을 미치는 방사선으로 인해 생활면에서 여러 가지 고통을 안고 있는 많은 사람의 고뇌를 함께 나누며 그 지원책을 확충함과 동시에 '검은 비 강우지역' 확대를 위한 정치 판단을 내릴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오늘 피폭 75주년 평화기념식전에서 원폭 희생자의 영령께 진심으로 애도의 뜻을 포함과 동시에 핵병기 철폐와 세계 항구평화의 실현을 위하여 피폭지 나가사키, 그리고 같은 생각을 가진 세계 사람들과 함께 진력해 갈 것을 맹세합니다.

2020년 8월 6일

히로시마시장 마쓰이 가즈미
번역: 주식회사 인터그룹